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승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조한일	면담자	이혜숙		
면담장소	모던목공방 사업장	면담지원	조연희		
면담 일시	2022년 10월 21일	회차	1	시간	43분 15초
자료번호	Mi chuholCA-08-00001659				
구술 개요	62년, 충청도 태안에서 태어남. 오랜 시간동안 가구 만드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거리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한 건 10년 좀 안 됨. 거리에 볼거리가 없는 게 아쉬워 나중에 목공 카페를 차리고 싶다.				
주요 색인어	목공, 나무, 볼거리, 교육, 전시, 주부 생활, 카페, 가전, 가구, 납품, 직장생활, 결혼, 일회용, 원목 가구, 규모, 청결, 고무나무, 서랍, 꼼꼼, 리폼, 보험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근황			00:00:37~	▷ 활동기획안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녹취문	
- 고향은 충청도 태안. 62년 생.			00:03:01		
2. 생애 인터뷰 중 과거 직업 관련			00:01:39~ 00:05:45		
- 목공을 직업으로 가진 지는 40년이 넘었음. 직장 생활을 많이 해서 여기 온 지는 10년 좀 안됨.					
- 나무 만지는 것을 좋아해서 개인 사업자가 됨.					
- 목공예 거리에 볼거리가 없는 것이 아쉬웠음.					
- 조각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짐.			00:05:46~ 00:08:52		
- 센터는 전시 보다 교육 위주로 운영됨.					
3. 미래			00:08:55~ 00:11:37		
- 목공 카페를 한 번 해보고 싶음.					
4. 첫 직업			00:13:07~ 00:43:15		
- 나무로 된 삼성전자 텔레비전 만드는 게 첫 직업이었음.					
- 플라스틱이 나오고 그 제품이 없어져서 그 회사가 가구 공장이 됨. 그 회사를 쫓 다녔음.					
- 회사에서 가구 만들다가 이 거리에 와서 개인 사업 시작함.					
- 아내와 재혼했음.					
5. 주문 제작					
- 물건을 만들 때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음. 요즘 가구가 일회용이 된 게 참 아쉬움.					
- 이사를 다니다가 지금의 가게에 자리 잡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무 만지는 게 재미있지만 위험함. 항상 조심해야 함.- 작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 꼼꼼한 성격. 작업장 항상 청결.-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손님한테 설명을 잘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함.-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나무 종류는 고무나무.- 나무 만지는 거 좋아해서 하는 거지,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음.- 자연 그대로의 나무 색깔이 예쁨. 인위적으로 색깔 넣으면 덜 예쁨.-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를 안 가지고 있음.- 일이 없어서 거리 규모가 줄어들.- 이 거리에 잘 못 들어온 것 같음. 경쟁력이 떨어짐.- 단골이 생김.- 가구 수리, 리폼도 함.- 나중에 시골 같은 데 내려가서 취미생활 비슷하게 공방 겸 카페를 만들고 싶음.- 특수 보험 같은 건 안둠.		
---	--	--